담양 역사박물관 2023년 착공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통과…총 184억 투입 체험·전시·교육 공간 조성

담양의 천년 역사문화를 담아낼 역사박물관 건립이 첫 발을 내딛었다.

담양군은 최근 관방제림 옆에 건립할 예정인 담양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국·도비 등 총사업비 184억원을 들여 담양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군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담양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공간 마련과 지역문화 홍보, 브랜딩을 위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대비해 왔다.

군은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역사박물관은 담양읍 객사리 16-1 일원 부지에 연면적 423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체험 공간,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으로 군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이자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읍 객사리 16-1 일원에 들어설 담양역사박물관 조감도. 〈담양군 제공〉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군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생태문화도시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박물관이 담양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구아바

애플망고

레드향

'아열대작물 메카 장성' 꿈이 영근다

군, 농진청 온난화대응연구소와 협력 방안 모색

패션프루트 등 62농가 16ha 재배…인력 양성 박차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한 장성군이 국내 아열대작물 메카를 향한 꿈을 다져나가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곳으로, 연구 결과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서 실증을 거쳐 전국 농업 현장에 적용한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선 군의 아열대작물 재배 관련 공모사업 현황과 동향, 농촌진흥청 협조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오혜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장성군이 활발한 기술 협력과 현장 소통을 통해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와 농촌 발전을 이뤄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에 국비만 투입되는 350억원 규모의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아열대작물 재배법을 실증하고, 산업화 촉진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실증센터가 준공되면 군은 국가 미래농업 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부터 아열대작물 재배를 시작한 장성군은 패션프루트(백향과), 구아바, 레드향, 여주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으며, 총 재배 규모는 62농가 16㏊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레몬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29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은 사업기간 동안 레몬 재배면적을 3㏊까지 확대하고, 아열대작물 재배 과정 중 저탄소 에너지 절감 실증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열대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주목된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성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도 2기 교육생을 선발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장성군은 총 63명의 아열대농업 전문가를 확보하게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장려상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 사업' 호평

장흥군이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블루이코노미 중 블루투어 부분인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측은 다양한 지역축제와의 연계로 차별화된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과 스포츠산업과 연계한 스포츠메카 장흥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흥군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남진 대교. 〈장흥군 제공〉

총 길이 4만2195㎞의 정남진 해안도로는 장흥군 안양면에서부터 회진면까지 연결돼 있다. 정남진 해안도로는 2012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개통된 이후 2019년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장흥 뮤즈웨이라는 테마로 도로의 각 구간마다의 특성을 살려 개발 중에 있다.

한편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블루이코노미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의 풍부한 청정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개발중인 정남진해안도로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특별교부세 11억 확보

강진만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속도

강진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주로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의 숙원사업인 ▲강진만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7억원) ▲강진 소방서~코아루 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4억원)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생태체험관 등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의 시설물 확장으로 인한 연안해역 수질오염을 강진만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를 통해 방지하고 강진만 생태계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군동면 호계지구 정주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았던 강진 소방서에서 코아루 아파트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신규 설치하고 도로를 확·포장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군, 세대공감·행복나눔 배달천사 사업 추진

독거어르신에 아동센터 아이들 손편지 등 전달

함평군이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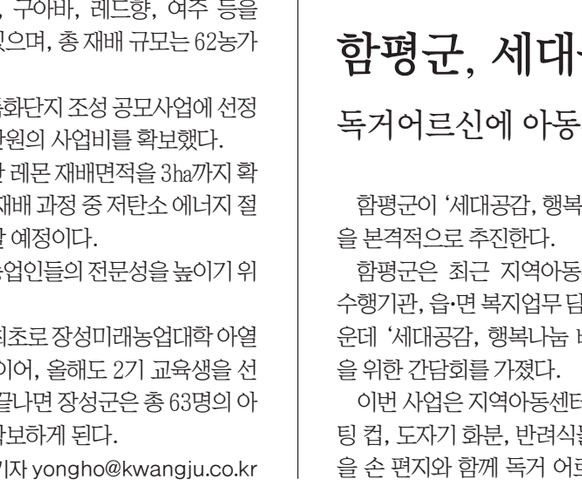
함평군은 최근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사업 수행기관,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핸드페인팅 컵, 도자기 화분, 반려식물 등 직접 만든 제품을 손 편지와 함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전남도가 추진한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역 지역아동센터 10개소 240여명의 아동과 함께 읍·면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